



2018년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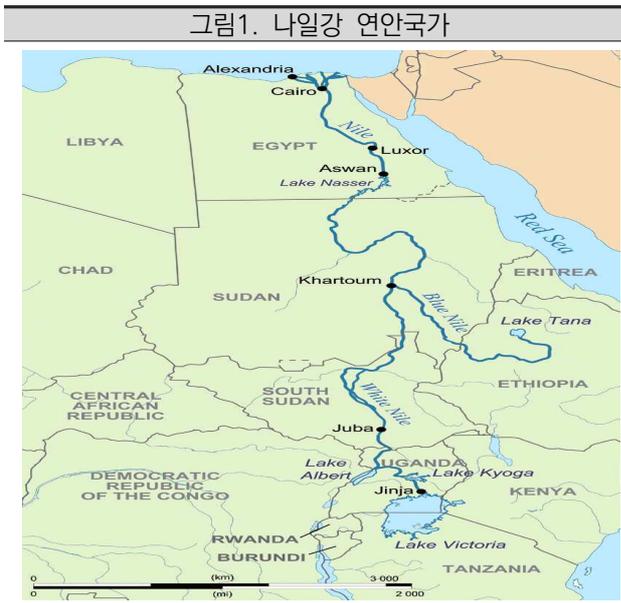
emerics@kiep.go.kr

나일강 연안국 수자원 분쟁의 최근 동향



©REUTERS

- 그동안 나일강 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 나일강 연안국들이 2018년 1월 29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AP)
- 나일강 관련 분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정책의 따라 체결된 나일조약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의 분쟁은 2013년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 상류에 대규모 댐건설을 시작하며 촉발되었음.
 - 나일강 관련 분쟁의 시작은 1929년 영국의 중재로 체결된 나일 조약 (Nile Agreement)에서 나일강 이용에 대한 이집트의 독점적 권한을 여타 연안국들과의 협의 없이 제도화하면서 발생
 - * 이후 1959년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수단의 나일강 이용권터를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이 조약 역시 이집트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자료: Hel-hama (Wikipedia)

표1. 나일강 수자원관련 주요 조약

연도	조약명	주요내용
1929	Nile Agreement (영국, 이집트)	댐 건설을 포함, 상류국들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집트의 거부권을 인정
1959	New Nile Agreement (이집트, 수단)	아스완 하이담에 유입되는 연간 수자원 740억㎥에 대해 이집트가 555억㎥를 사용하고, 수단이 185억㎥를 이용하도록 합의
1999 ~	나일유역구상 (NBI, 나일강 연안국)	나일강 수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논의
2010	엔테베 조약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이집트와 수단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수자원 이용 협정
2011	엔테베 조약의 확대	부룬디의 참여

자료: 저자작성

○ 반면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이용 권리를 배제한 앞선 조약들을 식민시대의 잔재로 무시하며 이집트, 수단과 갈등을 겪어오다 2013년부터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건설을 추진해왔음.

* 또한 에티오피아는 앞선 협정들에서 배제된 여타 연안국들과 함께 이집트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협정을 주도하여 이집트의 위협에 대응해 왔음

그림2. 그랜드 르네상스 댐 공사현장	표2. 그랜드 르네상스 댐 공사개요	
	그랜드 르네상스 댐 프로젝트	
	위치	칭나일
	규모	높이:155m 길이:1780 물 저장능력: 740억 m3
	발전용량	6000MW
	건설비용	약 50억 달러
	시공사	살리니 임프레질로
자료: 살리니 임프레질로 홈페이지 (https://www.salini-impregilo.com/en)	자료: 살리니 임프레질로 홈페이지 (https://www.salini-impregilo.com/en)	

- 동 분쟁은 에티오피아의 주권과 댐건설로 인한 나일강 하류의 유량감소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집트의 인구 대부분이 나일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어 유량감소는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임.
- 최근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의 정상 및 외교관들은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전력배분을 통한 외교적 문제해결을 논의하고 있음.
 - 그동안 악화되어 왔던 관련국들의 갈등은 최근 정상회담이후 외교관계 복원 등을 통해 완화되고 있음.
 - 에티오피아도 향후 댐 건설 완공이후 생산전력을 하류국가들에게 우선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EMERiCs**

(작성: 장종문 전문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